

무증상 선천성 신동정맥 기형 1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과학교실

이종호 · 신성준 · 김경수

A Case of Asymptomatic Congenital Renal Arteriovenous Malformation

Jong Ho Lee, Sung Joon Shin, Kyung Soo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신동정맥 기형(renal arteriovenous malformation)은 1923년 Varela에 의해 처음 보고 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50례 정도가 보고 된 드문 질환이다. 이들은 원인에 따라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그 중 선천성인 경우는 더 흔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 50례 정도 보고되고 있다. 후천성의 원인으로는 외상 및 신생검 등으로 인한 의인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 보고된 신동정맥 기형은 육안적 혈뇨 등 증상이 있어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자들은 개인의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신장에 종양이 관찰된다는 이야기 듣고 본원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한 57세 여자 환자에서 지속적인 좌측 복부 잡음이 청진되어 복부혈관장애를 의심하여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 혈관조영촬영 상에서 무증상 좌측 선천성 신동정맥기형이 발견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57세 여자 환자로 내원 3년 전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상 신장이 조금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그 이후 특별한 검사 없이 지나다가 건강검진 위해 개인의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신장에 종양이 관찰된다는 이야기 듣고 이야기 듣고 본원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다. 과거력 상 내원 3년 전 요실금 수술하였으며, 내원 6개월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으로 투약치료 중이다. 그 외에는 특이병력 없었다.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상 복부 청진 상 지속적인 잡음이 왼쪽 복부전체에서 들렸으며, 그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말초혈액검사는 모두 정상범위를 보였다. 소변분석검사서 적혈구수는 5-9/HPF로 약간 높았던 것 외에는 정상 범위였다. 복부 컴퓨터 단층 혈관조영촬영에서 좌측 신장 상극 (upper pole)부터 중극 (middle pole)에 걸쳐 거대 신동정맥류가 약 7 cm크기로 관찰되었다. 신동정맥류는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근위부에서 신 실질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가지 (blood vessel branch)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부위와 바로 원위부로 연결되는 부분은 약 10 mm정도의 직경을 보였으며, 좀 더 원위부에는 단락(shunt)때문에 두드러진 신정맥 확장과 신동정맥류가 동반되어 있었다. 환자는 6개월 뒤 다시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 혈관조영촬영 상 선천성 신동정맥기형의 모양이나 크기변화는 없었으며, 현재 7개월 째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 않아 추적 관찰 중이다.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처럼 최근 진단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선천성 신동정맥 기형의 보고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무증상 환자들은 추적 관찰을 통해 증상 발생여부를 감시하면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교육에 힘써야하겠다.

Key Words : 지속적 복부 잡음, 복부 컴퓨터단층혈관촬영, 신동정맥기형

Continuous abdominal bruit, Congenital A-V malformation